

믿음의 사람들 V.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자기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잠언 9:10]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1. 믿음은 행위의 영역이 아니라 존재의 영역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 으로부터 출발하며, 하나님 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에는 '우연' 이 있을 수 없다. 출발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으며, '인과관계' 가 분명한 '필연' 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이다. 더 구체적으로 '삶의 의미' 를 말한다. 인간의 존재란, 분명한 필연적 '의미' 위에 존재한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 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실제적 의미' 가 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 증거이자 표현이다.

2. 의미를 찾았다는 것은 '진리' 를 알았다는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자유와 기쁨이 신앙의 삶이다. 대표적인 예가 전도서이다. 전도서에서 지혜자는 끊임없이 인생에서 선이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를 묻고 있다.

[전도서 1:3]

1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2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3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존재이다. 전도서의 고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사는 모든 인생의 일은 헛된 것이라 고백한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즉 '삶의 의미' 가 무엇인지를 묻고있는 것이다. 성경은 부단히 하나님이 없는 '소유' (경험, 지식, 능력, 권력, 부, 명예 등) 는 헛되다고 말한다. 즉 '의미' 가 없다, 보람이 없다, 행복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3. 믿음의 삶이란 변화된 삶을 말한다.

결국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는 삶이다. 전도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믿음의 삶이란 변화된 생각, 마음, 행동을 말한다. 변화된 생각, 마음, 행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 이다.

4. 창조되는 믿음.

성경을 보라. 절망, 고통, 아픔, 묵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실제적 '변화' 가 일어났다. 절망을 말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시는 절망 가운데 있지않게 되었다. 우물가의 여인을 보라. 절망의 삶 가운데 '절망과 고통의 언어' 로 가득했던 그녀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 을 전하는 언어로 변화되었다. 실제적 변화가 일어났다.

복음 (예수님)이 나누어 질 때 믿음이 창조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안에 믿음이 생겨났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의 마음안에 '믿음' 이 창조 되었다.

[로마서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한다.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창조됨' 을 말한다. 여기서 믿음이란, 아무것도 없었던 마음안에 복음을 들음으로 '희망과 소망' 의 빛이 비추어진 것이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을 인식하며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한다.

5. 믿음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1) 지혜의 왕 솔로몬

성경은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라 말한다. 잠언은 지혜자, 즉 '하나님을 아는 자' 들의 삶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잠언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었던 일들을 믿음으로 풀어낸 사람들이 다. 이 땅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 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믿음'이다. 이 땅의 문제에 대한 실제적 해결을 성경은 '지혜와 명철' 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마음 (레브쇼메아)'이 바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 를 듣는 마음이었다.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의 왕인 솔로몬에게 세상이 다가와 문제의 답을 물었던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자발적으로 찾을 수 있게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문제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실제적으로 모든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왜 그런가?

[열왕기상 3:9]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번역)

솔로몬이 들었던 듣는마음은 이 땅의 송사를 풀어낼 수 있는 실제적 답이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호크마 - 숙련, 기술, 솜씨 등 실제적 능력) 였으며, 그 말씀이 잠언과 전도서이다. (땅의 이치를 깨달은 지혜자들)
잠언과 전도서를 통과한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 에 있음을 알고 아가서를 기록했다.
(잠언, 전도서 - 성전의 바깥, 성전 안뜰 / 아가서 -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2) 모든 인생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찾는 사람이 진리에 도달하며,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참 생명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시다. 실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3)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했다.

ㄱ.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이 땅의 계시가 풀린다.

보이지 않았던 영역들이 계시로 풀리며 그 일이 실체가 되게 하는 능력이 지혜이다.

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만큼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믿음의 그릇은 상상할 수 없다. 겉으로 아무리 부족하고 보잘것 없이 보여도, 이 믿음의 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6.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정점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5:12-14]

12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13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 하도록 받으십시오."

14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4,5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은 어린양 예수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 정점에 달한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죽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어린양 예수님은 이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어린양 예수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실제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란, 어린양 예수그리스도를 삶의 정점에 두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파하는 인생을 말한다. '예수님 만이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말한다.

솔로몬이 결국 아가서를 통해 신랑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랑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지혜와 명철을 받으라. 세상을 이길 믿음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자기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은총임을 기억하자.